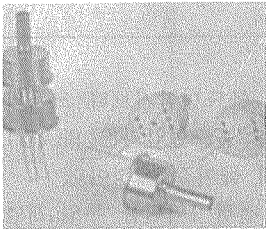


(주) 금성사
반도체 센서 개발



금성사(대표 이현조)가 압력을 감지해 시스템을 제어하는 피에조 저항형 실리콘 반도체 압력센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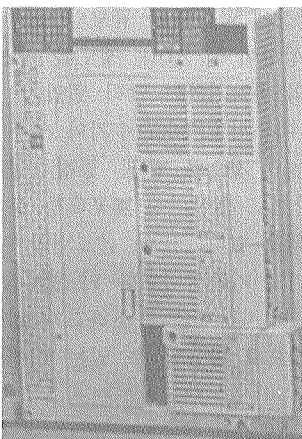
동사가 2년간 5억 여원을 투입, 개발에 성공한 이 압력센서는 압력이 가해지면 저항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피에조 저항체를 이용, 압력을 감지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부품이다.

이 제품은 각종 자동화기기와 자동차,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에 두루 사용돼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압력측정범위가 cm^2 당 0~1Kg중이며 주변 온도변화에 따라 압력센서의 특정치 변화가 작아 일본을 비롯한 선진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이 부품개발을 통해 미세가공기술 양극접합기술과 실리콘을 이용한 마이크로 센서의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성계전 (주)
중·대형반도체 센서 개발



금성계전이 13일 CIM(컴퓨터 통합생산)에 대응, 가능한 중대형 PLC 3종을 국산화해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중 「MF-60」모델은 56점짜리 기본유닛에 증설유닛(56점형)을 포괄경우 16절지 크기의 좁은 공간으로도 입출력점수 112점까지 구성되며 플러그형 출력 카드를 채택, 유지 및 보수가 쉬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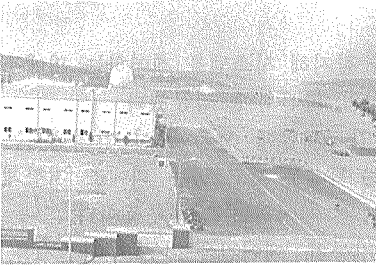
또 「MF80H-120H」모델은 입출력점수 최대 6,400점짜리 대용량이며 광섬유를 이용한 범용통신망을 갖춰 2가지 범용 네트워크와 3가지 전용 네트워크를 주변장치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금성계전 (주)
청주 제2공장 준공

금성계전(대표:성기설)은 최근 청주 4공단내에 심야기기류와 몰드변압기 등 고압기기를 생산하게 될 제2공장(부지 3만5천평, 건평 3천평)을 준공,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동사는 2000년대에 산업용 전기·전자분야 세계 TOP 10을 목표로 FA사업의 강화 및 각종 전기기기류 사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1공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물량에 대처하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총공

업·계·소·식



사비 50억원을 투입 이번에 제2공장을 준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주3공단내의 제1공장은 전력량계, 차단기, 개폐기 등의 범용전기기기류 위주로 생산하고, 제2공장은 고압·심야기기 및 10,000KVA급 초대용량 몰드변압기류 등의 수주제품을 전문생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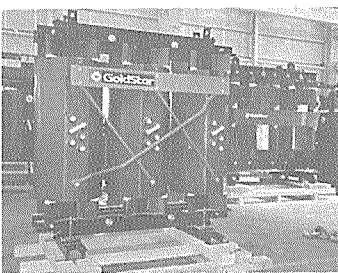
또한 제2공장은 언제든지 생산량의 증감에 따른 라인변경이 용이하도록 샌드위치 판넬식 공법으로 건축되었으며, 고압·심야·변압기류 등의 생산능력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나 본격적인 수주활동은 물론 短납기 관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금성계전 (주) 콤팩트형 몰드변압기 개발

금성계전(대표 : 成基錫)은 최근 기존의 몰드변압기보다 크기와 중량을 축소화시킨 새로운 감각의 콤팩트형 몰드변압기(22,9KV급)를 개발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성계전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1억원을 투입, 개발에 성공한 콤팩트형 몰드변압기는 크기와 중량을 모두 20%이상 축소시킨 소형·경량형이라는 점외에도 탭(TAP) 전환장치를 변압기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하여 안전성이 높고, 고품질의 珪素鋼板과 콤팩트한 鐵心과의 조합으로 철심칩수를 줄여 사용전력면에서 無負荷損을 17%이상 줄인 장점이 있다.

금성계전은 최근 준공한 청주 제2공장에 국내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진 몰드변압기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월 200대 정도를 생산·출시할 계획인데, 몰드변압기는 기존의 변압기와는 달리 변압기 핵심부분인 卷線 및 1,2차 도체를 각각 에폭시(EPOXY)수지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절연신뢰성과 강도를 높인 것으로 빌딩, 공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고안전도·高신뢰성·無公害성 등의 사용자 요구에 맞춰 수요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몰드변압기를 수배전반에 설치할 경우 배전반의 크기도 기존설비보다 약 30%(3상 6KV 100KVA)정도 축소되어 전원설비 설치장소를 축소하고자 하는 빌딩 지하 등의 전기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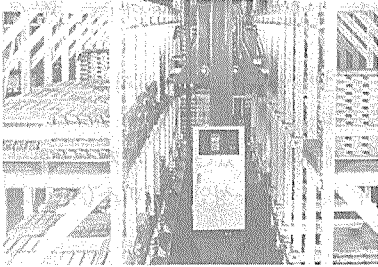


금성산전 (주) 스테커크레인 자동창고 표준형 모델 본격 생산

금성산전(대표 : 李喜鍾)은 최근 일본의 자동창고 전문업체인 오카무라社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까지의 주문 설계제작방식이던 스테커크레인 자동창고의 표준형 모델을 국내최초로 공급한다.

금성산전이 이번에 생산하게 되는 표준형 자동창고 시스템은 종전의 수주제작방식에서 탈피하여 창고높이 20M이하의 다양한 표준형 모델을 선정, 대량생산함으로써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업·계·소·식



특히 표준화 설계에 의해 20%이상의 원가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품질의 안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새로운 제어방식을 채택하여 팔레트(PALLET)의 負荷상태에 따라 스테커크레인 속도가 가변제어되어 물품의 입·출고 시간(CYCLE TIME)을 단축시켰고, 설치가 용이한 조립식 선반제작방식으로 선반 단높이의 조정이나 확장이 용이해진 장점이 있다.

금성정보통신 (주) 무선호출 송신기 개발

金星情報通信(대표:鄭壯喆)은 신호전송속도를 2천4백bps로 끌어올릴 수 있는 3백22메가헤르츠 대역용 무선호출송신기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160메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던 무선호출(일명 삐삐) 가입자가 322메가 헤르츠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무선호출의 적체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金星은 이 제품이 주기적인 주파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예비송신기를 기존 4대에서 1대로 줄여 설비투자를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성통신 (주) 음성안내 자동응답 전화기 개발

金星通信(대표:白重英)은 음성안내기능을 채택한 음성안내 자동응답전화기(모델명:GS-350VT)를 개발 완료하고, 6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이 자동응답전화기는 전화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음성안내 기능을 채택하여 사용에 서투른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 음성안내를 해준다.

동사는, 자동응답전화기의 편리성을 최대로 살려, 일정한 시간간격(40초)을 두고 3회반복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주는 3회 반복 자동재다이얼 기능을 채택하여 상대방과 통화중일 때, 바쁜 시간 중 통화예약을 할 수 있어 골프부킹 등의 업무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난전화로 부터 착신을 제한하고자, 착신제한기능, 역전기능 등의 장난퇴치기능을 부여하여 자동응답상태시 불특정인으로 부터의 무차별적인 장난전화의 녹음공세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기의 특성을 최대로 살려, 집안의 소리듣기(Room Monitor)기능을 부여, 노부모나 요양환자, 갓난어린이 등의 움직임이나 주변상황을 살필 수 있어 외출동안의 불안을 덜 수 있다.

긴급히 메모를 하고자 할 때 통화도중 메모녹음기능, 외부 조회시 용건메시지와 동시에 용건메시지의 착신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



업·계·소·식

는 음성 (Time-Stamping) 기능, 3분마다 경보음을 울려주는 3분경보기능 등의 다기능을 채택하였다.

외부원격제어기능을 강화하여 용건메시지, 응답메시지의 조회는 물론, 외부에서 시간입력도 가능하다.

또한, 금성통신은 톤변환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계식교환국 가입자가 무선폭출기 등의 호출시 및 자동음성안내서비스(ARS)의 사용시 편리하다.

금성통신 (주) 무선폭출 송신장비 국산공급 가시화

금성통신(대표:백중영)은 북미 최대 무선폭출장비 공급업체인 그레네어사와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동사가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급하게 될 무선폭출장비는 320MHZ대역의 무선폭출송신기로서 금성통신은 한국이동통신(KMTC)으로부터 무선폭출송신기의 국산화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그레네어 일렉트로닉(Glenayre Electronic)사는 현재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선폭출송신기 및 무선터미널의 전문 공급업체로, 동 분야에서 품질 및 성능면에서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회사로 현재 미국내 무선폭출장비의 공급 1위이다.

이번 동사가 제공받는 기술은 제조 및 생산기술외 소프트웨어 기술까지도 포함되는 일괄 기술계약으로 향후 금성통신은 고기능의 국산송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사는 올해(92년) 9월까지 개발을 완료, 92년 말까지 상용시험을 거쳐 93년부터 양산,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이 320MHZ대역의 무선폭출송신기를 개발하여 한국이동통신(주) 및 향후 선정될 제2 무선폭출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전선 (주) 무선통신사업 참여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이 개인휴대통신망(PCN)을 주력으로 무선통신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대한전선은 최근 미국의 테크메크론사와 기술제휴, 디지털무선전화기(DCP)와 무선구내교환기(PABX)의 개발을 끝내고 내년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 DCP는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DS-분산 스펙트럼방식을 채택, 주파수의 재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기존 아날로그무선전화기의 음질불량 통화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함께 대한전선은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외부의 공중전화와 연결, 이동중 자유로이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PAMX시스템도 개발, 시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
조립VCR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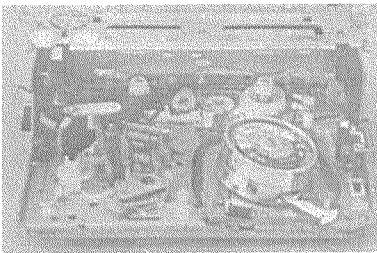
삼성전자(대표 강진구)가 일본 마쓰시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전선(와이어)을 쓰지 않고도 VCR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회사가 「위너」(WINNER)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30명의 인력과 40억원을 투입, 1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시스템은 VCR테크에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수를 현행 5개에서 1개로 축소, 한개의 PCB위에 모든 부품의 삽입조립을 가능케한 것이 특징이다.

또 PCB위에 테크메커니즘을 올리면 부품간 별도의 와이어 연결 없이 회로를 구성하게 만들었으며 현행 4비트마이컴 대신 간편예약 녹화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8비트마이컴을 자체개발, 채용함으로써 부품수도 4헤드기준 1천50~1천1백개에서 8백58개로 줄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VCR를 커버 PCB 테크등 3개의 블록으로 나눠 생산한 후 조립함으로써, 현행 70%수준인 공장자동화율을 100%수준으로 까지 높일 수 있게 됐고 제조원가도 9달러(35%) 정도 낮춰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수원공장에 1개 자동화 생산라인을 설치, 이달 부터 월 5만대정도씩 선없는 VCR를 생산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라인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주)
일반선박 장착가능
레이더장비 첫 개발**

삼성전자(대표:강진구)는 최근 일반 선박에도 장착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장비를 최초로 개발했다. 동사가 개발한 레이더 장비는 해상도 1280X-240의 컬러 모니터를 이용한 것으로 해안감시, 해안관제 및 해상항법용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삼성은 이 장비가 32비트 멀티프로세서를 이용 컬러그래픽 신호처리 및 이동물체의 자동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수입제품에 비해 방위 분해능력 100%, 거리판별능력이 67%씩 향상됐다고 밝혔다.

**신도리코 (주)
레이저식 팩스 첫 개발**

신도리코(대표:우석정)가 레이저기록방식을 이용한 보통용지 팩시밀리를 개발, 시판한다.

동사가 내놓은 「LF2500」기종은 보통용지 팩시밀리 중 열전사방식이 아닌 레이저방식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제품으로 G3급중 가장 빠른 6초대의 전송속도와 레이저 빔 프린터에 버금가는 선명한 화질을 실현한 것이 자랑이다.

이 제품은 또 수신상태에서도 송신원고를 메모리해 둘 수 있는 듀얼 역세스기능, 수신가능상대방지정 기능 등 사용 편의성을 더욱 보강했다.

**인켈 P·A (주)
산업음향기기 양산**

인켈PA(대표 조동식)가 자동화시설을 갖춘 전용공장을 준공, 산업용 음향기기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13일 준공식을 가진 이 공장은 경기도 양주군 덕정공단내에 대지 2천5백평 건물 2천4백평규모로 신축됐고 국내산업용 음향기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완전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내전산망을 갖추고 5백70여명의 직원이 생산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서울 도봉구 인켈 본사 공장을 통해 파워앰프 오디오믹서 동시통역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등 각종 산업용 방송장비를 생산해 온 인켈PA는 이번 전용공장 준공으로 생산능력이 연간 18만대에서 28만대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83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또 그동안 국내 음향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수출도 약 35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연간 25~30%의 안정적인 매출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남전자 (주)
위성방송 수신기 참여**

아남전자(대표 김주채)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방송(BS) 수신기 시장에 진출한다.

AV(오디오비디오)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무궁화호 발사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기 수요급증에 대응, 2년간의 연구끝에 최근 유럽용과 국내용 2개 모델의 개발을 끝마쳤다.

6월 유럽지역 수출을 목표로 현지 테스트중인 유럽용 위성방송 수신기(ASB-1000)는 유럽상공에 떠 있는 아스트라 인텔 등 3개의 인공위성에서 송신하는 채널을 모두 수신할 수 있다.

또 10월부터 안산공장에서 양산예정인 국내용 위성방송수신기(ASB-2000)의 경우 최대 71개채널 수신에 가능하며 홍콩의 스타TV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아남전자는 이번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과 함께 오는 7월께부터는 위성방송수신기능이 탑재된 컬러TV를 생산, 유럽지역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자 (주)
비디오 폰 본격생산**

한국전자(대표 박정소)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비디오 도어폰 생산을 본격화한다.

한국전자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외부방문객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도어폰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분야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1년간의 연구끝에 최근 4인치 평면브라운관

업·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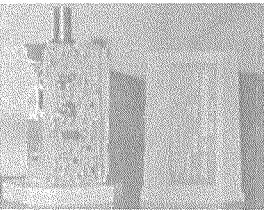


을 채용한 벽걸이형 비디오 도어폰의 상품화를 끝마치고 구미공장을 활용, 월 1천대가량 양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VP11SP)은 야간촬영이 가능토록 적외선램프를 채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터폰전선으로도 설치할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전자는 이달부터 유럽지역으로의 수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며 판매망이 정비되는 내달부터는 국내판매에도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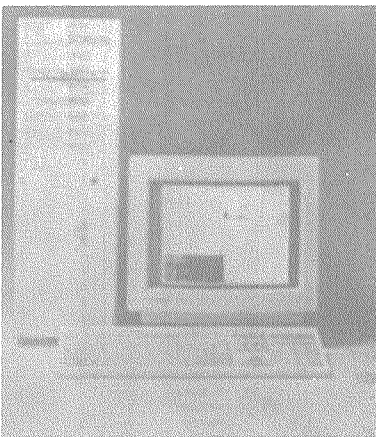
현대전자 산업 (주) 위성방송 저잡음 증폭기 개발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19일 위성방송용 소형 수평 수직 저잡음증폭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HDB-1000)은 잡음지수가 낮고(0.2db) 고주파신호(10.95GHz~11.7GHz)를 중간주파수 신호(9백50MHz~1천7백MHz)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현대전자산업 (주) 486 DX급 PC개발



현대전자가 486DX급PC(개인용컴퓨터)를 개발,6월부터 공급에 나선다.

현대는 이 PC가 33메가바이트의 데이터 처리속도를 가졌으며 기본16메가바이트의 기억용량을 1백28메가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CPU(중앙처리장치)카드를 교환할 경우 486SX(25메가헤르츠)에서 486SX(50메가헤르츠)까지 시스템이 확장된다.

현대는 워크스테이션급인 이 PC가 금융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에 적합한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포스데이타(주)TM
고성능 32비트 컴 개발

포스데이타(사장 성기중)는 11일 고성능 32비트 컴퓨터 POS 386 SV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새로 개발된 POS 386SV는 인텔 80386SX-20MHz CPU(중앙연산 장치)를 기본으로 고집적, 절전형으로 설계돼 있으며 CPU내에 보드를 갈아끼우면 상위기종(386SX, 386DX, 486SX, 486DX 25MHz)으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돼있다.

포스데이타는 이 제품이 국가기간 전산망에서 채용하고 있는 KSC-5601 코드를 채택, 국내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와 위치에 따라 데스크탑형 혹은 타워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